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09.26.)

### 참석

회사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김대중, 박병희, 박병현, 조애숙, 김기웅, 안인수, 박소정, 박경숙,  
정상경

### 강문식 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9월 여수 MBC 시청자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MBC 대표이사 이호인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대표이사

지난 회의에 말씀드렸던 여수MBC Y페스티벌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으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페스티벌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와 성과 확인. 내년에도 잘 이어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음.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 강문식 위원장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9월 업무 설명과 다음 10월 계획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센터장

정규 프로그램 제작 지속 진행, 라디오 전망대 9월 23일부로 진행자 이직과 함께 프로그램 편을 위하여 중단. 10월 7일 월요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섬특집 1부 거문도 백도 편 9월 12일 방영하였으며, 추석 당일에도 편성하여 방송. 9월 가족콘서트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10월 5일에 편성하여 방송예정. 섬마을 여행사 대행간도 편 방송하였음. 트로트클라쓰 '인생은 60부터' 주제로 순천시 구 장대공원에서 녹화진행. 여수MBC 뮤직플러스 채널 구독자 100만명 돌파.

10월 순천 세계유산 축전 관련아이템 취재 및 제작 중, 축제 기간 중 갯벌, 낙안읍성, 기독교 문화유산 관련 아이템 제작 및 관련자 인터뷰 진행 예정. 섬특집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작 예정.

트로트클라쓰 10월 15~17일 와인페스티벌과 함께 6부작 제작 예정. 10월 19일 여순사건 76주기. 보성에서 추념식 진행, 전남 3사 공동 생중계 예정.

10월 하반기 재난방송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예정

전남도립미술관 버스정류장 필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으며 라디오전망대에서 취재기자가 나와서 교통편에 대해서 이번주취재기란으로 방송. 추석 명절 관련 프로그램 편성하여 방송함. 홈페이지 개편 지속중 배너 리뉴얼 적용중

### 강문식 위원장

여수 섬박람회 추진중, 섬박람회가 여수엑스포처럼 성공한다면, 지역 경제 관광에도 큰 역할 할 것으로 기대. 여수MBC가 이와 관련된 콘텐츠 지속해서 개발해주길 바람

### 보도센터장

추석 연휴 아이টে으로 매일매일 리포트 보도, 전남 동부본부 개청 1주년 성과와 과제, 2026년 개최 예정인 섬 박람회 주요 과제 이슈 취재.

경제 뉴스로는 부영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부지 문제, 여수 불꽃축제 장소 변경 논란,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 행사 축제 관련 리포트 제작.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는 추석 연휴 때 고향사랑 기부제 허와실 주제로 제작.

10월 달에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이 예정돼 있어 관련 뉴스 준비 중, 여수시 지금 인구감소에 맞춰서 TF팀을 구성했음. 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채용실태 취재예정.

여수-제주간 여객선 적자 누적에 따라 운영 중단 위기 취재. 농업 관련 기사로 쌀 수확 앞두고 벼멸구 문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취재하겠음.

토크쇼 뉴스 앤 이슈는 여순 사건 76주기 관련 특별법 개정 촉구 내용 제작.

보도특집 관련해서 '미래교육 지역의 길이 되다'와 고흥 출신 월파 선생 서거 51주년이 기념 다큐 각종 형태를 제작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음.

### 강문식위원장

전남동부본부 개청 1주년 성과와 과제 관련하여, 전남 동부가 전남 전체 산업생산 60%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부처는 서부권에 있음. 도청까지 왕복 3시간 소요. 앞으로 부지사 1명 정도가 동부본부로 부임할 필요도 있음. 전남동부는 행정취약지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의견과 불만이 많이 제기됨. 이러한 내용 기획해서 동부권이 행정취약지역이 되지 않도록 다뤄주기를 바람.

지역의 골목상권 지역의 고유한 작은 가게들이 사면초과에 놓여있음. 인구감소, 대형 유통, 온라인 쇼핑몰, 상권의 양극화에 의해 지역 고유한 상권, 가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과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연구 관심 주시길 바람.

###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썸머 뮤직 페스티벌 Y'라는 타이틀로 총 4일간 여름 축제로 처음으로 엑스포장 해안가 일대에서 행사를 잘 마무리함. 첫째, 날 케이팝 콘서트 시작으로 둘째, 날 K 트롯 셋째, 날 나이트런 마지막 날 워터밤까지 진행함. 이후에 이 행사를 잘 디벨롭해서 대표 아이돌 페스티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9월 19일날 객재식 교수 초청해 '과물 이야기의 이상한 세계' 주제로 아카데미 예정. 9월 달에 어린이 뮤지컬 '친구의 전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공연함

10월 달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17일 정희원 교수(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초청해서 아카데미 진행예정. 그리고 11월 달 대형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준비 중.

정채봉 동화잔치 올해 순천신대도서관 일원에서 준비해서 개최예정. 올해는 최종 심사에서 문학상을 선정하지 않고 어린이들한테 위주하는 그런 동화잔치 형태로 올해는 10월 12일 날 개최.

### 강문식 위원장

전남동부지역 작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이 제일 취약함 기업체, 단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포상이 있는데 동부지역은 많이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음.

### 김대중 위원

여수 골목상권 침체문제 굉장히 심각함. 상가 1층도 한 집 건너 한 집씩 임대스티커가 붙여 있음. 조금씩 계속해서 퍼져갈 것으로 예상. 여수시 경제가 갈수록 안좋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스러움 이와 관련된 내용 지속해서 다뤄주길 희망.

지역 노동조합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력다툼, 이권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을 넘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동부권 안에서도 통합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한 내용도 취재바람.

### 박병희 위원

자영업실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음 공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함. 코로나19이후로 소비패턴의 변화,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 경향 등 대도시도 9시 이후면 한산해지고 있음. 우리지역사정이 어떤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취재가 필요.

행정적으로 동부권이 취약한 것과 관련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이 작년에 분리하여 전남연구원이 나옴. 전남연구원의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음. 전남연구원이 동부권으로 온다하면 지역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의 진출이 이뤄질 수 있음. 전남연구원의 유치 관련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동부권이 오랜시간 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되어 온 것도 있음. 산업과 관련된 기구들이 동부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방송국 사옥 내 환경개선 필요.

### 박병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먼저,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의료 필수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음. 행정적으로 지원책, 지역 대학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함. 행정적인 융통성 발휘가 필요

두 번 째, 방송에서 뉴스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사향을 꾸준히 다루고 있으나 여순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음. 여순사건이 왜 생겼는지, 피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리고, 피해보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방송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 조애숙 위원

전남동부가 서부권에 비해 행정적으로 소외지역인건 사실. 다만, 동부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화융성국이라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 다만, 동부본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다뤄주길 바란다.

올해 여수 불꽃축제 장소변경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름. 장소변경을 둘러싼 지역민의 득과 실에 대한 문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음

### 위원장

지역방송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역민의 행정수요, 행정취약구역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김기응 위원

우리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여수가 더 심각함.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대응TF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송국에서 체크 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생활인구가 줄면 안된다고 생각함. 산단 노동자, 관광인구 등이 같이 있어야 경제 활력도 돌고 영업도 할 수 있음. 경기따라 그리고 공사현장 따라 타 지역으로 상당부분 노동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안인수 위원

대형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완강기 사용법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음. 안전에 대한 보도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안전 관련 캠페인 등으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선소 맞은편 숙박업소 재개발 중단으로 지역 상권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여기에 대한 지적이 필요.

마지막으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꾸준히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 발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취재 필요.

### 박소정 위원

‘쉽’이라는 주제 기획하여 방영한 여수MBC 섬특집과 관련하여 느낌표, 물음표 등으로 예를 들어 시리즈로 기획하여 사람들의 삶속에 느낌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길 희망함. 뉴스 진행과정에서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시간에 쫓겨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 뉴스 방송과정 상 화면 전환 시 이를 잘 맞춰주길 바람. PC, 모바일로 뉴스 검색하면 영상 아래 자막이 맞춤법, 문장에서 오기가 많아서 정비 필요.

기후위기, 지방소멸, 인구절벽 관련 기획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이 필요. 방송화면 오른쪽 상단 여수MBC 로고 아래 캐치프레이즈나 캠페인 슬로건으로 주요 이슈를 다뤄주길 바람.

여순사건 관련하여 언론에서 여순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안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여순사건 70주년 때 여수 MBC가 제작한 7부작 특집 외 여순사건에 대한 기획이 여수MBC에 없음.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해주길 바람. 미래세대 교육에 반영되는 문제로 여수MBC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함.

전남 관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음식임. 그래서 전남의 맛깔스럽고 정겨운 음식과 전남의 어머니들을 연결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제안.

마지막으로 섬박람회 어떤 콘텐츠로 진행할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관심과 취재 필요.

### 박경숙 위원

인구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다양한 재능이 교류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함.

시민들의 삶 속의 숙의민주주의와 서류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되고 있음. 서로 배우고 교육하는 것. 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마을 교육과 관련된 성과공유에 대하여 MBC에서 조명해주길 바람.